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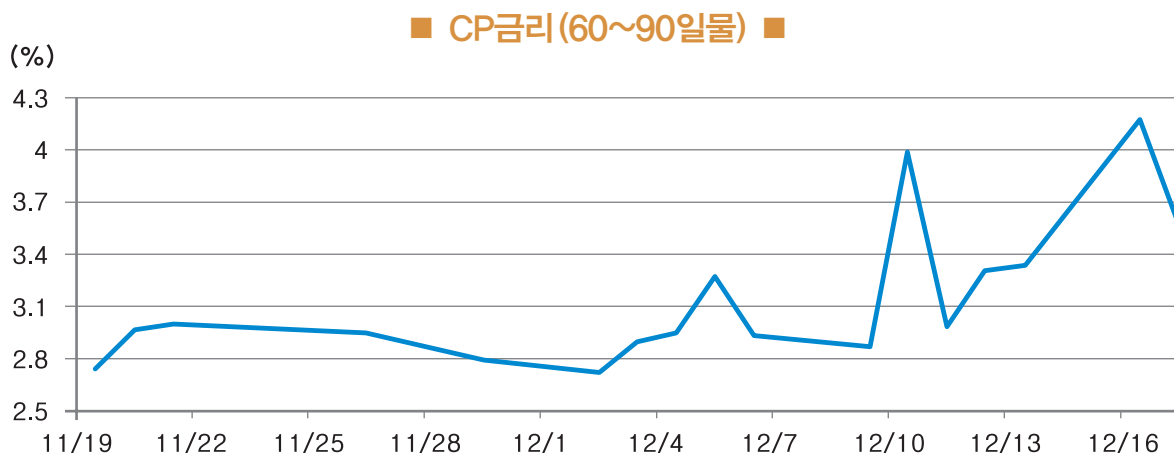
최근 CP 금리 상승요인

동양그룹 사태 이후 부각된 CP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연말 자금조달이 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CP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최고 신용등급인 A1 등급 기업의 CP 금리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만기 60~90일물 평균금리가 한달 전에 비해 약 1%포인트 상승하였고 일부 비우량 기업의 CP 금리는 2~3%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P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통어음인데 회사채에 비해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유동성이 급한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채 발행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CP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콜 차입규제 방안(2015년 시행)으로 그동안 단기자금을 저리에 조달해 CP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해 온 증권사 투자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금융투자협회

세상 둘러보기

글로벌 CEO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특징

영국 파이낸셜타임즈(12.17)는 자주 출장가는 글로벌 CEO 10명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소개했다. 바로 스마트기기(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등)이다. 전세계를 누비는 이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때로는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글로벌 CEO들은 일반 스마트기기 사용자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여러 개의 스마트기기를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 기기별 장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블랙베리폰은 Android나 iOS 운영체제를 가진 다른 스마트폰보다 이메일 기능이 우수하다. 또 아이패드 등 화면이 큰 기기는 신문구독할 때 편리하다.

둘째, 스마트폰 앱(App)을 상당히 많이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G-mail, Skype와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앱은 UBER(우버)이다. 우버 서비스는 일종의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우버 앱을 사용하면 택시 연결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급자가용 등 렌터카를 고객이 주문하는 장소에 가져다주고, 요청하면 기사도 함께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즈니스 업무에 바쁜 CEO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인 우버사는 현재 전 세계 22개국 53개 도시에서 서비스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서울에도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우버사가 진입했다.

셋째, 대부분 과도한 수준의 충전장치를 가지고 다닌다는 점이다. 세계적 패션의류업체인 오스카 드라렌타(Oscar de la renta)의 Alex Bolen 대표는 출장을 갈 때는 iPhone 5s, iPad 외에 비닐주머니(zip-lock)를 필수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비닐주머니에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어댑터와 충전기가 들어 있다. 가득 채워진 비닐 주머니 모양이 다소 우스꽝스러워 가족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배터리가 없을 때가 더욱 우스꽝스러워진다고 말하고 있다.